

-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2019.12.16.(월)~12.23.(월) / 미국,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차

I. 출 장 개 요	3
II. 출 장 일 정	4
III. 출장국 개요	7
IV. 분야별 출장내용	19
□ 사회복지 분야	19
□ 도시재생 분야	27
□ UN평화문화특구 활성화 분야	30
□ 문화·관광 분야	33
□ 다문화정책 분야	39
□ 기타 분야	44
V. 결 론	47
VI. 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명단	51

I 출 장 개 요

■ 목 적

- 미국, 캐나다의 우수 제도와 정책을 비교견학하고 우리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우수자료를 수집하여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로 의회의 역할을 제고
 - 사회복지, 도시재생, UN평화문화특구, 문화 관광, 경제·금융, 역사·정치 분야 현장시찰을 통해 분야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구정에 접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남구 주요현안사업별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 사업별 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되짚는 계기를 마련하여 남구발전에 기여

■ 출장참여 : 11명 ▷ 의원 8명, 직원 3명

■ 출장기간 : 2019.12.16.(월) ~ 12.23.(월) ▷ 6박 8일

■ 출장국가 : 미국, 캐나다

■ 출장활동 내용

- 우수 복지정책 시행 사회복지시설 비교견학 및 우수사례 수집
 - ⇒ 뉴욕 한인봉사센터, 필라델피아 한인센터
- 도시재생 성공사례지 견학 및 우수사례 수집
 - ⇒ 배터리 파크 (항구 매립지 재개발 지역)
- UN평화문화특구 활성화 자료 수집
 - ⇒ UN(United Nations),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
- 문화·관광·경제·금융 기반시설 및 다중 편의시설 운영 분야
 - ⇒ 워싱턴 한국문화원, 월스트리트,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나이아가라 폭포 등
- 다문화정책 우수사례 수집
 - ⇒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II

출 장 일 정

일자	지역	교통	시간	출장일정
1일 (12/16)	부산	KE1402	07:00	김해 출발
	인천	KE81	08:10	인천 도착
	뉴욕		10:00	인천 출발
	뉴저지		10:00	뉴욕 도착, 맨하탄 탐방
			14:00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15:30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견학
			19:00	호텔 투숙
				♣ 연수추진계획 및 세부일정 관련 토론 간담회
2일 (12/17)	뉴저지		08:30	호텔 조식
	뉴욕		10:00	뉴욕 한인 봉사 센터(복지센터)
				-뉴욕 및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직업교육, 사회복지, 이민관련문의 등 각종 복지사업
			12:00	중식 후 맨하탄으로 이동
			13:15	-UN 내부 견학 (UN 평화문화특구 연계 검토)
			16:00	-자유의 여신상 견학
				-항구 매립지 재개발 지역인 배터리 파크 시찰 (용호부두 친수공간 조성 연계 검토)
				- 월스트리트 견학 (BIFC 부산국제금융센터 연계 검토)
	뉴저지		18:00	호텔 투숙
				♣ 2일차 연수성과 토론 간담회
3일 (12/18)	뉴저지		08:00	호텔 조식
	필라델피아		11:00	필라델피아 한인센터
				-필라델피아 지역의 한인 지역 사회 커뮤니티 센터로써 구직상담 및 배치, 조기학습센터, 방과 후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여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이민자 법률 지원, 주택임대서비스 등의 업무
			12:00	중식 후 필라델피아 문화 탐방 (자유의 종, 인디펜던스 홀)
	워싱턴		15:00	워싱턴으로 이동
	버지니아		18:00	호텔 투숙
				♣ 3일차 연수성과 토론 간담회

일자	지역	교통	시간	출장일정
4일 (12/19)	버지니아 워싱턴		08:00 10:00	호텔 조식 워싱턴 문화원 -2010년 10월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워싱턴 D.C.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미 양국 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양국 우호관계를 증진
	펜실 베니아		12:00 16:00 18:00	중식 후 -스미소니언 국립 자연사 박물관,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견학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 견학 -국회의사당(외부), 백악관(외부) 견학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UN 평화기념관, 평화공원, 조각공원 등 관내 기념관, 공원과 연계 검토) 이동 호텔 투숙
				♣ 4일차 연수성과 토론 간담회
5일 (12/20)	펜실 베니아 나이아 가라		07:30 15:00 18:00	호텔 조식 나이아가라로 이동 -캐나다 국경 통과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 인프라 견학(꽃시계, 월풀 등) (관광 기반시설, 다중 편의시설 현장시찰) 호텔 투숙
				♣ 5일차 연수성과 토론 간담회
6일 (12/21)	나이아 가라		08:00	호텔 조식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현장시찰 (관광 기반시설, 다중 편의시설 현장시찰)
	토론토 미시소거		12:00 14:00 18:00	중식 후 토론토로 이동 -신시청, 구시청 견학 (행정수요 등에 따른 신청사(별관) 건립 등과 연계 검토) 호텔 투숙
				♣ 6일차 연수성과 토론 간담회
7일 (12/22)	미시소거 토론토	KE74	11:40	호텔 조식 공항 이동 토론토 출발
8일 (12/23)	인천	KE1405	15:25	인천 도착
	부산		17:15 18:20	인천 출발 김해 도착

■ 출장단 담당 과제

연번	직 위	성 명	담 당 과 제
1	의장	이강영	단장
2	운영위원장	김현미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3	주민복지도시위원장	허미향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4	의원	조상진	우수 복지정책 사례 자료 수집
5	의원	이병준	도시재생 우수사례 자료 수집
6	의원	강건우	UN평화문화특구 활성화 자료 수집
7	의원	고선화	문화·관광·경제·금융 기반시설, 다중 편의시설 우수사례 자료 수집
8	의원	유명희	다문화정책 관련 자료 수집
9	사무국장	김영수	과제 연구자료 수집
10	직원	노승민	과제 연구자료 수집
11	직원	조외건	과제 연구자료 수집

Ⅲ 출장국 개요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



- 국 명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 수 도 : 워싱턴 D.C. (Washington D.C.)
- 인 구 : 약 3억2천9백만명
- 종 교 : 개신교, 로마가톨릭교, 모르몬교, 기타 기독교, 유대교 등
- 민 족 : 백인(80%), 흑인(13%), 아시아인(4%), 인디언 및 알래스카인(1%) 등
- 언 어 : 영어
- 정 부 : 연방공화제
- 면 적 : 9,831,510km²(남한의 약 100배, 한반도의 약 45배)

정식명칭은 아메리카 합중국이다.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북쪽으로는 캐나다와 접해 있다.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대서양에 접해 있고, 남동쪽으로는 카리브해가 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온대 주요부를 차지하며 50개주와 1개 특별구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에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이고, 원주민은 아시아 대륙에서 알래스카를 통해 이주하여 정착한 인디언으로 추정되며,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영국인에 의해 지배되었다가 1775년에 시작된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여 독립된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동부에서 서부로 영토가 확장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인디언들이 정착지를 잃고 죽임을 당하거나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미국은 내분에 휩싸여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북부군이 승리하면서 진정한 통일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은 세계 각지로부터 인구유입이 이어졌고, 산업화를 통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20세기 들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현재 세계 최강국이 되어있다.

□ 뉴욕 (New York)

미국 뉴욕주(州)에 있는 미국 최대의 항구도시

- 위치 : 미국 뉴욕주(州)
- 면적 : 1,213km²
- 인구 : 약 8백만명

미국 최대의 도시로써, 1790년 이래 수도로서의 지위는 상실했으나, 미국의 상업·금융·무역의 중심지로서, 또 공업도시로서 경제적 수도라 하기에 충분한 지위에 있으며, 또 많은 대학·연구소·박물관·극장·영화관 등 미국 문화의 중심지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외를 포함하여 1,600만명이 넘는 방대한 인구를 수용하는 이 거대도시는 미국 내에서도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는 독특한 도시이다. 국제적으로는 대무역항으로서 대서양 항로의 서단에 위치하는 가장 중요한 항구이며, 1920년대 이후에는 런던을 대신하여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향상과 더불어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적 지위는 한층 강화되었으며, 1946년 국제연합(UN) 본부가 설치된 후에는 국제정치의 각축장이 되었다.

뉴욕주의 남동단, 뉴욕만으로 흘러드는 허드슨강 어귀 일대에 위치한다. 허드슨강·이스트강·할렘강·뉴욕만 및 롱아일랜드 수로 등에 의하여 구획된다. 대도시권으로서의 뉴욕은 시역 밖으로 뻗어, 뉴저지·코네티컷의 두 주에도 미치고 있다.

시는 맨해튼·브롱크스·브루클린·퀸스 및 스테튼섬의 5개 구(boroughs)로 이루어져 있다. 맨해튼은 시의 중심부이며, 그 남단에 금융 중심지인 월가(街)가 있다. 월가에서 북동쪽 브로드웨이의 42번가는 타임스스퀘어(Times Square)로 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며, 그 남쪽에 펜실베이니아역, 동쪽에 그랜드센트럴역 등 도심의 두 주요역이 있고, UN본부도 동쪽 이스트 강가에 있다.



- 미국 최대의 도시
- 상업·금융·무역의 중심지
- 5개 구(boroughs)로 구성
 - 맨해튼, 브롱크스, 브루클린, 퀸스, 스테튼섬

뉴욕의 기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기온(일평균, ℃)	3.1	4.2	8.9	14.6	19.8	25.0	28.2	27.7	23.9	18.2	12.1	5.9
최저기온(일평균, ℃)	-3.9	-3.2	1.1	6.0	11.3	16.6	20.1	19.6	15.6	9.6	4.7	-0.8
총강수량(월평균, mm)	80.5	76.7	91.2	99.1	96.5	92.7	96.5	86.6	83.8	73.2	92.7	86.9

(세계 기상 기구(WMO) 발표 자료, 1964~1990년 조사 결과.)

□ 워싱턴 D.C. (Washington D.C.)

미국의 수도

- 위치 : 미국 매릴랜드주(州)와 버지니아주(州) 사이
- 면적 : 177km²
- 인구 : 약 7십만명

정식명칭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이며, 워싱턴 D.C.로 약칭된다. 포토맥강 연안의 매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사이에 있는 연방직할지이며, 어느 주에도 속해 있지 않다.

프랑스인 피에르 샤를 랑팡의 설계로 건설된 **계획도시**여서 백악관과 워싱턴 물을 중심으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정원과도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시가지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을 중심으로 넓은 도로들이 방사상으로 뻗어 있으며, 도로들은 바둑판 모양으로 교차되어 있다.

1790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미국의 수도로 지정되었고, 1878년 조지타운이 워싱턴의 일부가 된 이래 새로운 국가의 영구 행정부 소재지로 선정된 컬럼비아 특별구와 공존하고 있다. 매릴랜드 주 북쪽에 있는 볼티모어시와 함께 통합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 입법·행정·사법부의 중심**이며, 산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 중심은 주로 관공서 관련업무이며, 교통시설은 지하철이 많은 외곽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이웃한 매릴랜드주, 버지니아주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방정부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이지만, 동시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빈부의 격차와 학력의 격차가 커 대도시권에 사는 주민들은 학력과 소득이 높은 반면, 시 안에 사는 주민들 중에는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장애자·노인 등이 많다.

명소로는 국회의사당, 백악관을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진귀한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국회도서관, 각종 박물관이 있는 스미스소니언협회, 링컨기념관, 제퍼슨기념관, 워싱턴기념탑, 케네디 대통령이 묻힌 알링턴 국립묘지 등이 있다. 그 밖에 국립미술관, 국립공문서보관소, 국립자연사박물관, 국립아메리카역사박물관,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등이 있다.

철도와 항공의 중심지로는 유니언역, 로널드 리건 워싱턴 국립공항, 덜레스 국제공항 등이 있으며, 포트맥네어, 포트마이어, 앤드루스 공군기지, 블링 공군기지 등의 군사시설이 인근에 있다.



- 미국의 수도
- 정식명칭 :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
- 계획도시
- 미국 입법·행정·사법부의 중심

워싱턴 D.C.의 기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기온(일평균.℃)	5.7	7.7	13.6	19.3	24.6	29.3	31.4	30.5	26.7	20.6	14.6	8.3
최저기온(일평균.℃)	-2.9	-1.6	3.2	8.0	13.7	19.2	21.9	21.1	16.9	10.2	5.1	-0.2
총강수량(일평균. mm)	69.1	68.8	80.5	68.8	93.0	85.9	96.5	99.3	84.1	76.7	79.2	79.2

(세계 기상 기구(WMO) 발표 자료, 1961-1990년 조사 결과.)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의 동쪽 끝에 있는 도시

- 위치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
- 면적 : 369km²
- 인구 : 약 1백5십만명

뉴욕과 워싱턴의 중간, 델라웨어강의 우안에 위치하며 미국 메갈로폴리스의 중심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도시의 기원은 1636년 스웨덴계 이민이 최초의 백인취락을 건설한 것에서 비롯되지만, 1681년에 W.펜이 영국계 이민을 이끌고 온 뒤부터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 독립전쟁을 전후하여 독립군의 최대 거점이었고, 여러 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1776년에는 인디펜던스 홀에서 독립선언이 발표되었고, 1790~1800년 미국의 수도가 되기도 하였으며, 19세기 초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산업활동은 상업과 공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은행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회사, 상점이 집중해 있다. 공업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유산업인데 미국 동부에서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다. 기계·금속·섬유·식품가공·화학·인쇄·제본·제지·의료기구 등 모든 종류의 제조업이 이루어진다. 하이웨이·철도·항공로가 집중된 델라웨어강 연변에는 80km에 걸친 항만시설이 갖추어져 활발한 화물 수송을 보인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어 필라델피아 교향악단을 비롯한 여러 음악, 발레 단체가 있다. 이 밖에도 필라델피아 미술관, 자연과학 아카데미, 프랭클린 연구소,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등 문화·교육기관이 많다.



- 미국 메갈로폴리스 중심도시 중 하나
- 1776년 인디펜던스 홀에서 독립선언 발표
- 1790~1800년 미국의 수도
- 미국 동부에서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음

필라델피아의 기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기온(일평균.℃)	3.3	5.0	10.9	17.0	22.8	27.6	30.1	29.2	25.3	19.1	12.8	6.3
최저기온(일평균.℃)	-5.1	-4.0	0.7	5.6	11.5	16.6	19.6	19.1	14.8	8.0	3.1	-2.2
총강수량(월평균. mm)	81.5	70.9	87.9	91.9	95.3	95.0	108.7	96.5	86.9	66.5	84.8	85.9

(세계 기상 기구(WMO) 발표 자료. 1961~1990년 조사 결과.)

【 캐나다 (Canada) 】



- 국 명 : 캐나다 (Canada)
- 수 도 : 오타와 (Ottawa)
- 인 구 : 약 3천7백만명
- 종 교 : 로마가톨릭교, 개신교, 기타 기독교, 이슬람교 등
- 민 족 : 영국계(28%), 프랑스계(23%), 유럽계(15%), 아시아아프리카아랍계(6%) 등
- 언 어 : 영어, 프랑스어
- 정 부 : 입헌군주제
- 면 적 : 9,984,670km² (남한의 약 100배, 한반도의 약 45배)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넓은 나라로 북아메리카 대륙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면적의 나라이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서쪽으로는 미국 알래스카주, 남쪽으로는 미국 12개주에 접하고, 동쪽으로 대서양·데이비스해협·배핀만, 서쪽으로 북태평양, 북쪽으로 북극해와 접한다.

행정구역은 10개주, 3개의 준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명은 수천년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캐나다 인디언의 후예인 휴런-이로쿼이족의 언어로 ‘마을’, ‘정착지’를 뜻하는 “카나타(Kanata)”에서 생겨났다.

15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캐나다를 탐험하였고,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이 동쪽 대서양 해안가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7년 전쟁을 벌여 캐나다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고, 1763년 프랑스가 패배하여 캐나다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1763년 영국이 프랑스와 맺은 파리조약 이후 영국의 식민상태로 있다가 1867년 캐나다 자치령이 독립하였고, 1951년 정식 국명을 캐나다로 변경하였다.

□ 나이아가라 지방자치구 (Regional Municipality of Niagara)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남부에 위치한 12개의 도시와 자치단체로 이루어진 지방자치구

- 위치 :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 면적 : 1,852km²
- 인구 : 약 4십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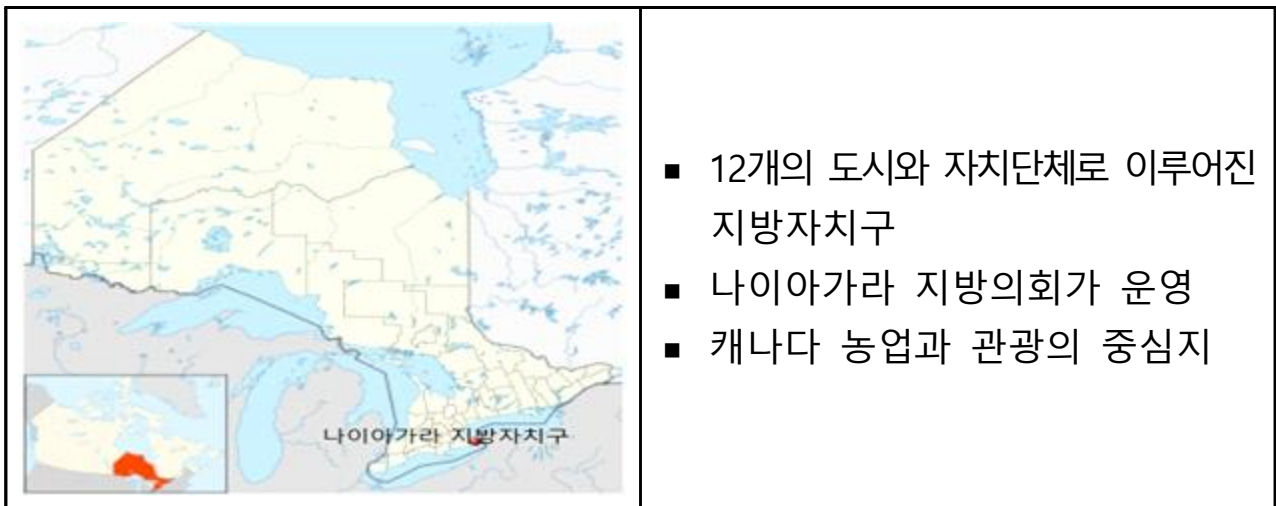
나이아가라 지방은 나이아가라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동쪽으로 미국과 국경을 접하는 나이아가라 강이 있다. 지방의 북쪽으로는 온타리오 호, 남쪽으로는 이리 호가 있다.

나이아가라 지방은 독특한 자연풍경으로 캐나다 농업과 관광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농업으로 포도를 생산하거나 포도주를 만들기도 한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더불어 나이아가라 와인 루트는 나이아가라의 포도주 양조장과 연결하여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곳이다.

나이아가라에 처음 정착했던 사람들은 캐나다 원주민이고, 영국 사람들이 처음 정착했을 때에는 이 지역에 ‘뉴어크’라는 마을을 형성하였다.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 많은 영국 사람들이 링컨과 웰랜드 카운티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후 이 지역의 농업·경제·산업·교육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860년대 링컨과 웰랜드 카운티의 형성 이후, 1960년대까지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났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온타리오 주(州)의 카운티 재개편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나이아가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재개편하는 나이아가라 지방자치구 법이 1969년에 온타리오 주의회에서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부터 26개 지방자치단체가 12개로 통폐합되고, 이 12개 지역은 오늘날의 나이아가라 지방자치구를 신설하여 편입되었다. 오늘날의 나이아가라 지역은 40여만명의 인구와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발전하였다.

나이아가라 지방자치구는 나이아가라 지방의회가 운영하며, 지방의원은 12명의 지차제 시장과 18명의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30명의 지방의원 중 호선하며, 나이아가라 지방의 연방의회와 주의회 선거구는 4개(나이아가라 웨스트-글렌브루크, 세인트캐서린스, 웰랜드, 나이아가라폴스)로 나뉜다.



□ 토론토 (Toronto)

캐나다 온타리오주(州)의 주도

- 위치 :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 면적 : 630km²
- 인구 : 약 2백7십만명

온타리오 호 북쪽 연안에 있는 캐나다 제1의 도시이다. 오대호 수운의 요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호항으로 발전하였다. 1749년 프랑스의 무역항으로서 요새가 축조되었으나, 1759년 영국에 점령되어 요크라고 불렸으며, 1795년 상(上) 캐나다의 주도가 되었다. 1834년 이후 토론토로 부르게 되었으며, 몬트리올이 프랑스계 캐나다의 중심지인데 반하여 토론토는 영국계 캐나다의 최대 중심지이다.

오대호의 수운을 이용하여 석탄을 비롯한 코크스·석유·밀·잡화를 집산한다. 또 온타리오 반도의 풍요한 농업지대에 위치하며, 광물자원이 풍부한 로렌시아 대지 및 나이아가라 폭포의 전원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업이 발달하여 부근의 해밀턴, 윈저와 함께 캐나다 제1의 공업지대를 이루고 있다. 주요 공업제품은 섬유류·전기기기·기계류이며, 가축 도살량도 캐나다에서 최대이다.

시의 공업지구는 두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모두 배수가 좋지 않은 소택지를 매립하여 건설하였으며, 항만시설도 토목기술의 정수를 모은 것이다.

시내에는 장대한 건축물이 많고, 특히 세인트제임스 교회, 세인트마이클 교회 등 큰 교회가 많다. 토론토대학교(1827년 창립), 요크대학교(1959년 창립) 등이 있고, 미술관·공원·동물원 등도 고루 갖추어져 있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州)의 주도
- 캐나다 제1의 공업지대
- 주요 공업품 : 섬유·전기·기계

토론토의 기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기온(일평균.℃)	-1.1	-0.2	4.6	11.3	18.5	23.5	26.4	25.3	20.7	13.8	7.4	1.8
최저기온(일평균.℃)	-7.3	-6.3	-2.0	3.8	9.9	14.8	17.9	17.3	13.2	7.3	2.2	-3.7
총강수량(월평균. mm)	61.2	50.5	66.1	69.6	73.3	71.5	67.5	79.6	83.4	64.7	75.7	71.0

(세계 기상 기구(WMO) 발표 자료. 1971-2000년 조사 결과.)

IV 분야별 연수내용

☒ 사회복지 분야

■ 뉴욕 한인봉사센터 [2019.12.17.(화) 10:00~11:30]

(KCS, The Korean Community Services of Metropolitan New York)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미국 이민이 본격화되던 1973년에 설립된 미동부 최초의 한인사회전문복지관이다. 현재 뉴욕 한인봉사센터(KCS)는 맨해튼, 코로나, 플러싱, 브루클린 등 6곳의 장소에서 매일 1,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KCS)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정부기관, 민간재단 및 다양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실시되고 있다.

구 분		내 용	비 고
노인복지	플러싱&코로나 경로회관	■ 아시아계 미국인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 - 아침식사, 점심식사 봉사 - 독거노인 식사배달 - 교육 및 오락활동 프로그램 - 영어 및 컴퓨터 수업 - 건강 및 웰빙 워크숍	노인주간보호 센터 운영 ▪ 소외, 지체장애 노인 돌봄
교육, 이민	성인영어교육	■ 영어 구사능력 부족 이민자 대상 영어교육 제공	청소년 하계 자원봉사 프로젝트(YCAP)
	이민	■ 영주권 및 시민권 지원절차, 서류준비 등 이민 서비스 제공	

구 분		내 용	비 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장년직업훈련 프로그램	■ 장년직업훈련 프로그램(SCSEP) - 영어능력 부족한 5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 정규직 또는 시간제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	
	컴퓨터 교육	■ 컴퓨터 활용능력 수업	
공공보건	KCS 공공보건부	■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지식을 증진 - 건강보험 상담 및 교육 - B형 간염 검진 및 교육 - 당뇨 및 건강한 식생활 교육 - 여성건강 - 면역체계 강화	
긴급구호기금		■ 어려움에 처한 한인 대상 임시 긴급 구호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클리닉		■ 13세이상 대상 서비스 제공 - 심리상담 치료 (개인, 커플, 가족, 그룹) - 미술치료 - 정신성 약물 관리 - 건강진단 및 관리	

☞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린다 리 사무총장)

Q	뉴욕 한인봉사센터를 찾는 사람은 많은가?
A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어가 필수이다. 아메리카 드림(America Dream)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온 분들 중에는 영어 구사가 부족한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미국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영어교육 뿐만 아니라 구직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센터가 한인들을 위해 교육, 구직, 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봉사를 하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기도 하고,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Q	뉴욕 한인봉사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A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 선(先) 집행 후 보조를 받는 형태이며, 센터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미국은 기부문화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칭송이 아주 높다. 또한, 미국 정부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강력한 감사를 실시하고, 기부금의 투명성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우리 센터는 정부 보조 뿐만 아니라 각급기관이나 개인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으며, 이 후원은 센터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Q	봉사활동 관련해 우리(부산 남구의회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A	복지기관(센터)에는 이용자와 종사자가 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복지기관(센터)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는데, 서비스 제공은 종사자가 하고 있다.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복지기관(센터) 운영과 관련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한국에 돌아가시면 관할구역에 있는 복지기관(센터)을 대상으로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 관련사진



뉴욕 한인봉사센터 간담회



노인주간보호센터 견학



시설 견학



프로그램 견학



방문기념품 전달



단체사진 촬영

필라델피아 한인센터 [2019.12.18.(수) 11:00~12:00] **(The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Service Center-PIL)**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비영리단체로 구직상담 및 배치, 조기학습 센터 운영, 방과 후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여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운영, 노인 사회 복지서비스, 이민 및 시민권 서비스,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서비스, 주택 임대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한인을 도와주는 역할 수행

Welfare Program

· 저소득층을 위한 Program: Pennsylvania 주정부에 의한

1. Cash Assistance (현금 보조)
수령 전에 Closed.
2. Health care coverage (의료 보험)
Medicaid 라고 부르는 주정부 보험.
자격 ①수령: FPL (연방정부 빈곤선)에 의한.
②시민권자, 영구권자 (5년이 지난)
③ 1년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노인.
④ 월소득 또는 자산 (Balance)이 독신: \$2000, 부부: \$3000, 이하 미만. - 생명보험 등 no Cash Value
⑤ Car 1대, house 1
3. SNAP (Food Stamps) (음식 보조)
자격 ①수령: FPL 130% 정도
②시민권자, 영구권자 (10년이 지난)
③④⑤는 동일

Social Security Benefit (사회보장제도) : Federal 연방정부에 의한

1. Medical Insurance (의료 보험)
Medicare (A)
(B)
· 10년 이상 Tax Report : 40 credits 이상인 영구권자, 시민권자
· 만 65세 생일: 3개월 전 또는 3개월 후 안에 신청
(2 개월이 지나면 1년마다 10%의 penalty가 Part B에 추가됨)
2. SS Benefit (사회보장 연금): 40 credits 이상
· 만 62세 부터 - Early Retirement Benefit (30% 이하)
[수령에 제한 있음]
· Full Retirement Benefit (만기연도)
1954년 출생: 66세 생일
1955년 : 66세 + 2개월
1956년 : 66세 + 4개월
3. SSI (생계 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SSI D (Disability)
시민권자로 장애자 (permanent disable)
· SSI
[시민권자 2 65세 이상: SSI amount 이하
위 자격 ④⑤ 해당]

지역 한인 대상 복지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 안내서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엄대용 목사)

Q	지역 한인들을 위한 봉사에 어려운 점은 없는가?
A	나는 젊은 시절 미국으로 왔다.(엄대용 목사 70대) 미국 내 이민 정착이 쉬운 것은 아니다. 생계를 위한 구직도 중요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의료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만큼 개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인데, 한국처럼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다. 제도상 당장 어려운 점을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은 늘 마음 아픈 부분이다.

Q	센터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A	우리 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 센터는 비영리단체를 통한 구직 연계, 어린이 대상 방과 후 각종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대상 방학기간 봉사활동 연계,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이민 관련 상담 등을 하고 있다.

Q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정부 차원에서 소극적이다.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같은 센터들이 존재하고, 기부문화를 바탕으로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도 정부의 부족한 면을 민과 함께 보충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분위기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관련사진



필라델피아 한인센터 간담회



각종 프로그램 안내



복지정책 비교



방문기념품 전달



단체사진 촬영

✎ 소감 및 시사점

국토면적이 큰 미국은 일찍부터 지방분권을 정착시켰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정책이라 하면 공적인 의미가 큰 우리나라와 비교해 미국은 사적인 시장에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을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 사적인 시장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내가 가진 자산과 소득의 일부를 세금을 통하여 타인에게 나누어주기 보다 스스로 선택한 비영리단체에 기부하여 직접적인 나눔을 실천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비영리단체들과 긴밀하게 일한다.

미국은 1) 종래부터의 전통의 영향으로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공적 부조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는 점. 미국의 복지모형은 개인책임의 원칙을 우선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보충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완적 복지모형에 입각하고 있어 선진국 중 복지문제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이다. 2)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영향으로 평등보다는 능력주의의 입장이 강하다. 3) 지방분권주의와 연방제도의 영향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들이 많으며, 또한 주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주에 따라 격차가 심하고 표준화되지 않았다.

국토면적이 작은 우리나라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서비스 전달이 효율적일 수 있다. 정부 설립 단체가 아닌 경우 기부문화가 자리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영리단체 운영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복지정책으로부터 배울 점은 1) 지역을 독립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보며, 2)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효과성에 대해 보고하며, 3) 지역 내에 있는 기관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구는 ‘남구 복지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지역의 복지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노력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민·관협력 지역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남구형 Community Care 모델 개발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도시재생 분야

■ 뉴욕 배터리파크 [2019.12.17.(화) 16:00~17:00]
(Battery Park)

간척지 활용 수변개발로 유명한 배터리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 개발 사업은 주정부와 시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공적기관의 역할 조정자 역할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활기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한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사례이다.

허드슨 강변 배터리 지역은 1930년대 후반 자동차 교통과 항공 교통의 발달 등 물류운송 체계의 변화로 이용빈도가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쇠퇴, 도시의 노후화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한 지역이었다. 정부는 녹지와 공원 확보에 많은 비중을 두었는데, 이는 뉴욕이라는 비싼 땅의 지역에서 녹지 확보를 우선한 것은 향후의 도시발전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계획은 세계 최고의 선진도시가 지향해야 할 모범적인 도시구조의 한 모형을 제시했으며, 이 사업은 1966년 재개발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30여년간 진행되었다.

뉴욕시는 부지를 BPCA(Public Benefit Corporation)에 임대하였으며, 개발에 대한 권한도 BPCA에 위임함으로써 개발과정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BPCA는 1)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2) 공공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채권 발행, 3) 재산세 대납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 소감 및 시사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오랜기간 개발·보존 등의 순환과정을 통해 나타난 변화의 산물이며, 각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에 의해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도시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소홀과 기존 시가지 외곽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혼잡과 각종 공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 자연자원 훼손, 기존 도시의 슬럼화, 도시경관의 파괴 등 많은 도시적 폐해가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성장의 한 측면으로 간주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개발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도시생활은 장소에 기초한 공동체의 파괴로 기술되고, 개인주의, 고립, 소외로 특징지어졌다. 이에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도시재생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 전역에 걸쳐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남구는 최근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 관리사업’과 ‘우암동 소막마을 새뜰마을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용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커뮤니티 조성, 공공서비스 활성화, 사회적 환경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및 도시경쟁력 회복을 내용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용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는 부산시 정책이주지역으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며, 2014년 용호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거주비율이 높고, 65세이상 인구비율이 31.72%, 독거노인 비율이 9.16%로 노인돌봄 및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발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지역이다. 뉴욕 배터리파크 도시재생 사례로 보아,

- ✓. 도시개발에 대한 새로운 컨셉을 받아들이고, 새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도시발전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도시의 역사와 문화 등 과거를 되살리고 이를 도시의 미래지향성과 결합시켜야 한다.

- ✓. 주민 아이디어와 능동적 참여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시 다른 부문의 주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도시재생, 도시(재)개발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고려를 담아 ‘일반서민’ 또는 ‘대중’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 ✓.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홍보 강화, 공무원 교육, 도시재생 지원조례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있어야 한다.

부산시, 남구, 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의 업무협약으로 용호부두 일원을 종합 개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자유로운 사고, 종합적 시각,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남구 주요현안사업인 용호부두 재개발사업을 통해 활기있는 도시공간이 창출되기를 기대하며,

남구 전역이 세계에서 우수·모범 사례의 도시재생지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의지를 높여야 할 때이다.

	
용호부두 재개발 대상지(적색)	현장사진

UN평화문화특구 활성화 분야

 **UN** [2019.12.17.(화) 16:00~17:00]

(United Nations, 국제연합)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협력활동을 하며, 주요기구와 보조기구, 전문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 설 립 일 : 1945.10.24.
- 설립목적 : 전쟁방지, 평화유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
국제협력 증진
- 주요활동 : 평화유지, 군비축소, 국제협력
- 소 재 지 : 미국 뉴욕
- 가입국가 : 195개
- ☞ 정회원국 193개, 참관회원국(observer state) 2개(바티칸시티, 팔레스타인)

UN(United Nations)은 총회를 비롯하여 사무국·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의 주요기구와 그 산하에 많은 보조기구와 전문기구가 있다.

【 총회(General Assembly) 】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연합의 최고기관이다.

【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

미국, 영국, 러시아연방, 중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진다.

【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경제·사회·문화·교육·인권·보건 등의 여러 문제를 관할한다.

【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

국제연합의 감독 아래 신탁통치에 관한 문제를 관할한다.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을 감독하고 그 지역의 자치와 독립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한다. 마지막 신탁통치지역인 팔라우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함에 따라 1994년 10월 신탁통치이사회는 해산되었다.

【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세계법원’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제연합본부에서 떨어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다. 이해 당사국이 위탁한 모든 사건, 헌장과 발효중인 조약, 협정에 명시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며, 조약·국제관습·일반법리를 적용한다.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 사무국(Secretariat) 】

국제연합의 상설 사무기관으로 평화유지군의 편성과 지휘 외에 국제분쟁의 사실조사와 조정활동을 한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군비축소, 경제·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 국제법 개발 등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 관련사진



UN 관계자 설명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단체사진 촬영
(UN 총회 회의장)

☞ 소감 및 시사점

우리 구는 2010.5.19. 대연동 785번지 일원(면적 574,147㎡)에 대해 UN평화문화특구(Busan Nam-gu Special Peace and Culture Zone for the United Nations)로 지정되어 세계 유일 UN기념공원의 정신적 정체성을 문화화하여 세계평화와 자유수호 성지로 특화하고 평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2010. 2월 세계에서 유일하게 UN사무국으로부터 “UN” 명칭 사용을 정식으로 승인 받았으며, 같은 해 5월 우리 구가 ‘UN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되었다. 2011. 10월 제1회 UN평화대축전 개최를 시작으로 부산예술회관 개관, 젊음의 과장 조성,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 유엔평화기념관 개관, 6·25참전 유엔군 활동기념 조형물 제작,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개관, 유엔참전기념거리 조성, 청년창조발전소 개소 하는 등 UN의 정신과 설립목적을 근간으로 세계평화·자유수호성지·평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UN평화문화특구 내 8개 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 참배 및 추도 방문, 각종 행사와 공연·전시 등 기관 간 정보 공유, 2) 평화·문화시설 사업 총괄 안내, 홍보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사업 발굴, 3) 오류도 등 지역관광과 연계한 평화 및 문화시설 투어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UN평화문화특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UN평화문화특구	유엔평화기념관
	
유엔참전기념거리 조성	평화문화 공연

 워싱턴 한국문화원 [2019.12.19.(목) 10:00~11:00]
(Korean Cultural Center Washington, D.C.)

2010. 10월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워싱턴 한국문화원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한글, 태권도,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한-미 양국 국민간 문화교류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워싱턴 한국문화원은 스미소니언 소속의 미술관 및 박물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 등 현지의 권위있는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 한국영화 상영회, 정기 전시회, 한국어 강좌 등 문화원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WELCOME



The Korean Cultural Center Washington, D.C. strives to play a positive role in our community as an open cultural space where all people can experience the full breadth of Korean culture through art exhibitions, live performances, film screenings, Korean language classes, educational outreach, special events, and much more.

We also serve as a hub of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rom our location in Washington, D.C., the heart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a cultural capital of the world. Through the medium of Korean culture, we engage broadly with the American public, fellow cultural institutions, and the greater international community.

Actively facilitating networking and cooperation among artists and organizations in both countries is one of our major goals, in order to adv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cultural collaborations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We also aim to discover creative new ways to introduce Korean culture to American society.

We will strive to serve as a unique cultural platform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at showcases the distinctiveness and originality of Korean culture.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as we move forward together.

KOREAN CULTURAL CENTER PROGRAMS OCTOBER - DECEMBER 2019

EXHIBITIONS

Minhwa: The Beauty of Korean Folk Paintings
October 4 - 21, Opening Reception: Friday, October 4 at 6:00 p.m.

Resonance: Works by Artist of the Year Jubee Lee
November 1 - 29, Opening Reception: Friday, November 1 at 6:00 p.m.

Talk Talk Korea 2019 Winners Exhibition
November 8 - 30, Opening Reception: Friday, November 8 at 6:00 p.m.

Recollection: Reinterpreting Tradition and Heritage
December 6, 2019 - January 5, 2020
Opening Reception: Friday, December 6 at 6:00 p.m.

FILMS

New Trial (형집)
Thursdays, October 10 & 24 at 6:30 p.m.

A Single Rider (싱글라이더)
Thursdays, November 7 & 21 at 6:30 p.m.

The Sheriff in Town (셔IFF인타운)
Thursdays, December 5 & 19 at 6:30 p.m.

Webtoons and the Big Screen: The Online Origins of Today's Korean Cinema
November (Date TBD)

PERFORMANCES

The 4th Annual Korean Performance Week
The National Korean Cultural Center, 1,000 Years of Sound and Movement
Tuesday, November 19 at 7:30 p.m.
Terrace Theater,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Reggae Meets Korean Fandom
Wednesday, November 20 at 8:00 p.m.
Millennium Stage,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Garden Concert Series: Wandering Melodic Road by The Tune
Wednesday, November 6 at 8:00 p.m.

K-Classic: End-of-Year Celebration
Wednesday, December 11 at 7:00 p.m.
Anderson House

SPECIAL

OUTREACH

LANGUAGE

PARTNERSHIPS

Baltimore Korean Movie Series
October - December, Parkside Theatre

The 6th Edition of Georgetown GLOW
December 6, 2019 - January 5, 2020

Found in Translation: Art and Seoul
Friday, November 22, 8:00 p.m. - 12:00 a.m.
Smithsonian Institution, Arthur M. Sackler Gallery

VISIT US

워싱턴 한국문화원 활동 내용

- 전시 : 문화원 2층에 민화, 한국전통물품 등 전시
- 영화 : 한국 신작 영화 상영
- 공연 : 문화원 정원을 무대로 만들어 인근 주민 초청 공연 전개
 👉 Garden Concert
- 강좌 : 한글어휘, 문법 등 한글 교육



공연(Garden Concert) 모습



한국문화 체험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최승진 문화홍보관)

Q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A	우리 한국문화원 방문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곳은 각국 대사관(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모든 국가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국대사관 소속의 문화원으로 한국문화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K-POP의 영향으로 한국의 이름이 많이 알려져, 한국 문화를 알리는 우리도 더불어 자랑스롭다. 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을 알리고 있다. 문화원 1층은 업무공간과 상영관, 2층은 전시공간, 야외는 공연도 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는 다른 대사관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 문화원의 인기가 높다.
Q	워싱턴 한국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하여 달라.
A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외부 연계 기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참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비용 대비 과정내용의 질이 높아 참가율이 높은 편이다.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전파에 노력하고 있다. 문화원 야외 정원에서 펼쳐지는 ‘가든 콘서트’는 이 지역에서 유명해졌을 만큼 인기가 높다. 뿌듯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한국문화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임에 더없는 노력을 다하겠다.
Q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한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 풍물패 단원, 가수 분들이 미국 일정 중 한국 교민, 현지 주민을 위한 공연봉사를 부탁했을 때 흔쾌히 수락을 해주심에 감사드린다. 2019년도도 열심히 달려왔고, 보람있는 시간들이 많았다. 다가오는 2020년도는 한국을 알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관련사진



워싱턴 한국문화원 간담회



워싱턴 한국문화원 활동 소개



한국문화 전시



워싱턴 한국문화원 모습



방문기념품 전달



단체사진 촬영

✎ 소감 및 시사점

한국문화를 인근 주민, 워싱턴, 미국에 알리는데 여념이 없는 워싱턴 한국문화원을 보며 문화의 세계화를 생각해 본다. 문화의 세계화는 자본이나 기술, 국가의 영향력 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문화 자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문화는 오랜 전통과 교류를 바탕으로 축적되어 오면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좋은 점을 창조적이고 합리적으로 전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지 우리문화를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인의 취향에 맞게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일정부분 보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른 사회의 문화가 지닌 긍정적 요소를 개방적,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한국문화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융합을 통해 새로운 한국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한국문화와 새롭게 재구성된 한국문화를 알리고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노래, 춤 등의 대중문화를 통해 한국문화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다른나라 사람들과 공유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우리 구는 오륙도평화축제, 백운포달맞이축제, 오륙도사랑걷기대회, 평화음악회 등 주민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한다. 매년 개최되는 문화축제행사에 매년 같은 내용으로 구성한다면, 주민들이 찾지 않는 주최/주관자만의 행사로 그칠 것이다.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각층의 연령대를 고려하며 흥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다채롭고 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축제라면, 우리 구만의 행사가 아닌, 부산, 나아가 전국적 문화축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며, 이의 모범사례로 워싱턴 한국문화원을 다시 생각해 본다.

■ 문화축제 사진



제23회 오륙도평화축제
(2019.10.19.~10.20.)



2019. 백운포달맞이축제
(2019.2.19.)



제34회 오륙도사랑걷기축제
(2018.10.13.)



제10회 평화공원 국화전시회
(2019.10.19.~11.10.)

☒ 다문화정책 분야

■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9.12.16.(월) 14:00~15:00]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New York)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1949. 4. 1. 미국 뉴욕주 뉴욕에 창설되어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5개 지역 : 미국 전체 인구의 14.8%, 면적의 3%, GDP의 17.3%)를 관할하고 있다. 통상·문화·영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교민보호와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관할지역 동포 현황 (약 42만여명)

- 뉴욕 : 193,655명
- 뉴저지 : 140,061명
- 펜실베이니아 : 66,239명
- 커네티컷 : 17,159명
- 델라웨어 : 4,108명

경제업무로 미국 경제정세 및 동향파악, 경제협력, 진출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사업무로 교민보호, 여권 및 비자발급, 호적정리, 재외국민 등록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뉴욕에는 삼성, LG, SK, 한화, CJ 등 주요 대기업과 우리, KB, 하나 등 주요 금융기관의 미주 본사가 위치하는 등 약 120여개사가 소재해 있으며, 통상 관련 관할지역 국내기업 지사 및 유관기관 대표들이 모여 경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최근 뉴욕지역 동포사회는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1.5~2세대들을 중심으로 미국 주류사회 진출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 관할 주 연방하원의원 : Andy Kim(뉴저지주, 민주당, 2019. 1월 초선)
- 관할 주 하원의원 : Ron Kim(뉴욕주, 민주당, 2019. 1월 4선)
Patty Kim(펜실베이니아주, 민주당, 2019. 1월 4선)
- 관할지역 시장 : Christopher Chung
(뉴저지주 펠리세이즈파크, 민주당, 2019. 1월 초선)
Susan Shin Angulo
(뉴저지주 체리힐, 민주당, 2020. 1월 초선)

뉴욕의 한인타운은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에서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식당은 우리 교민 뿐 아니라 현지인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 손님 중 40% 정도는 현지인이다. (한인업소 : 165개소 - 식당, 병원, 여행사, 노래방, 부동산 등) 한류를 전파하는 진정한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인타운 정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한인타운에 “코리아타운 번영회”가 발족되어 간판정리, 쓰레기처리, 거리정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80년부터 매년 추석 무렵(10월 첫째 토요일) 뉴욕 한인회 주최, 뉴욕 한국일보 주관으로 브로드웨이 일대에서 오색꽃차, 마칭밴드, 기마대, 취타대 등 다채로운 행렬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동포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는 코리안 퍼레이드를 개최하고 있다.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이경호 부영사)

Q	총영사관의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달라.
A	우리 영사관은 1949년 4월 1일, 세계의 중심도시인 뉴욕에 창설되었다. 뉴욕 인근 5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교민보호, 기업보호, 영사업무, 경제업무,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공관장은 2019년 11월에 부임하신 장원삼 제26대 총영사이시며, 건물 6층에 민원실과 문화원이, 8층과 9층에 총영사관 본청이 위치하고 있다. 참고로, 1883년 구한말 민영익 보빙사 일행이 23rd St. 5th Ave. 호텔에서 21대 체스터 대통령에게 고종 황제의 국서를 봉정한 것이 최초의 한국인 방문이었으며, 이민 1세대의 경우 대부분 청과상, 수산소매, 세탁업, 식품요식업, 뷰티서플라이 등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였으나, 이민 1.5세대 또는 2세대들을 중심으로 변호사, 의사, 금융전문가 등 전문직 진출과 현지기업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Q	뉴욕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
A	뉴욕시는 미국 동북부 뉴욕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790km²로 맨해튼, 브루클린, 브롱스, 퀸즈, 스테튼 아일랜드 등 5개 행정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인구는 뉴욕시 5개구 합계 약 854만명으로 높은 밀집도와 인종적 다양성이 특징이다. 뉴욕시 거주 3백만명 이상이 외국 출생이며, 2000년 이후 뉴욕 이민자들이 뉴욕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하게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일기 변화의 폭이 크다. 뉴욕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데, 현재 시장은 민주당 소속의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이다. 워싱턴이 미국의 행정수도로 건설되어 미국 정치 중심의 수도인 반면에 뉴욕은 금융, 서비스,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세계의 수도’로 불려지고 있다. 또한 뉴욕 4대 산업인 세계 금융, 상업, 서비스, 패션의 중심지이며, 특히 1792년 뉴욕증권거래소 설립 이후 월가(Wall Street)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는 잘 알고 계시듯,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연장에서 화려하고 활기찬 뮤지컬 프로그램이 연중 공연되고 있고, 링컨센터, 카네기홀 등 대규모 공연장이 위치해 연중 음악회, 연주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뉴욕은 세계의 중심지라고 보면 될 듯 하다.

Q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오늘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텐데, 우리 총영사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한인들은 단합하여 노력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활발하고 식당, 노래방 등 한국문화는 현지에서도 인기가 높다. 오늘 저녁, 한국식당에 들리셔서 식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미국 출장일정을 원만히 보내시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시길 바란다.

■ 관련사진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간담회



방문기념품 전달



단체사진 촬영

✎ 소감 및 시사점

지금 한국은 가파른 다문화 비율 상승으로, 2050년 정도면 다문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5명중 1명이 된다고 한다. 지금은 20명중 1명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에서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인데,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대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인 약 250만여명으로 취업 관련자들이 많지만, 결혼이주민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혜택, 비자혜택, 커뮤니티, 심리상담,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 등 현재 정부에서는 다문화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가정폭력전과자 국제결혼 초청 불가, 5년내 다른 외국인 결혼이민 초청 불가, 동남아 및 열악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부부 모두 건강검진, 범죄경력, 결혼의 진정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제결혼 건전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이주민들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 의사소통 지원, 직업교육, 국적취득 혜택, 인권보호 증진, 차별금지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민자들에 의해 나라가 건국이 되었고 통합정책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다문화 정책이 가장 능동적으로 자리잡은 모범사례인 국가이다. 한국의 경우 다문화에 대한 비판, 혐오감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개선해야할 점들이 아직 많다.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미국사회 속에서 한인들이 개척해 온 길, 현재의 한인의 모습과 위상을 보면서 우리 구는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상호존중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다. 전통을 중시하며 국제화, 세계화로 나아가는 선진도시 남구를 생각해본다.

기타 분야

경제·금융 중심지 현장견학 및 우수사례 수집

미국 뉴욕 맨해튼에 금융 밀집 구역 월가(Wall Street)가 있다. 세계 금융 시장의 중심가로, 1792년 창립된 세계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 증시(증권)거래소를 비롯하여, 증권회사, 은행이 집중되어 있어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남구 문현동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BIFC)가 지상 63층, 지하 4층, 높이 289m 규모로 2014년에 개장하였다. BIFC는 금융빌딩으로 BNK부산은행 본점과 KIBO기술보증기금이 같이 위치하여 문현동은 금융도시가 되었으며, 인근 동천강과 편리한 교통역세권으로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경제·금융 기반 확보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상권이 살아나며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월가



부산국제금융센터

■ 역사와 정치, 문화가 함께하는 도심 조성

미국 도심은 역사와 정치, 문화를 볼 수 있는 장이다.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종, 인디펜던스 홀, 국립헌법센터,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관은 자유추구의 면모를 볼 수 있고, 마틴루터 킹 기념관, 링컨 기념관, 토마스제퍼슨 기념관은 역사적 인물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으로 도심 속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이다.

우리 구 당면 주요현안사업인 ‘UN국제컨벤션센터 유치’, ‘Sea-Side 관광지 개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현동 생태숲 조성’,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용호부두 재개발사업’ 등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도심 속 공간들로 재탄생하기 위해 민관, 관련기관들의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은 부지가 협소하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지혜롭게 풀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되기를 희망한다.

	
링컨 기념관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Sea-Side 관광지 개발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 지역관광 활성화 우수사례 수집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높이가 55m, 폭은 671m에 달한다. 폭포는 두 부분으로 나뉘며, 한쪽은 아메리칸 폭포이며, 다른 한쪽은 캐나다의 호스슈 폭포이다. 폭포를 두고 호텔, 식당, 놀이시설, 기념관들이 모여 있으며, 나이아가라 폭포 크루즈 운항, 씨네테널 운영 등 관광상품 개발·운영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토론토의 시청사는 국제 공모전을 통해 1965년에 완공되었으며, 높이가 다른 반원형 쌍둥이 타워 두 개를 낮은 건축물로 연결한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이다. 시청 앞에는 1955년부터 1962년까지 토론토 시장이었던 네이션 필립스(Nathan Phillips)의 이름을 딴 네이션 필립스 광장이 있다. 여름에는 ‘프레시 웬즈데이즈’라는 농산물 시장이 서고,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겨울에는 광장 분수가 아이스스케이팅 링크로 활용된다. 시청사 맞은편에는 1899년 건립한 옛 시청이 있다. 지금은 주 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시청사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개발한 모범사례로, 우리 구는 ‘우암동 복합청사 건립’, ‘남구청 별관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사업이 당면해 있으며,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 좋은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시청사
	
우암동 복합청사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

우리 구는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 많다.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실질적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정책개발,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결정 및 주거환경개선, 세계유일의 UN기념공원이 위치한 UN평화문화특구 활성화, 국제화·세계화 속 지방자치단체 남구의 다문화정책 방향, 문화관광도시 비전 실현의 발전방안을 비교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접목·활용하기 위한 고민과 남구 행정과 함께하는 구의회 역할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다.

□ 사회복지분야

한국의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이다. 좁은 의미로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금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금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사회보장·주택보장·공중위생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의 경우가 해당이 된다.

우리 구는 2019년 복지행정을 위해 주민주도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복지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시설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에 노력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생계·주거급여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의 복지정책이 한국과 비교해 모두 우수한 것은 아니다. 일찍부터 지방분권을 정착시킨 미국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고, 공적인 의미가 큰 우리나라와 비교해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을 사적인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컸다. 사적인 시장에는 영리 목적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 이번 출장 중 미국의 복지정책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비영리단체 활용과 기부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노력이 가미된다면 한층 복지수요에 발맞추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평화로운 백년을 함께 준비하는 포용복지 남구’,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남구’,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도시 남구’ 구현을 위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를 가졌다.

□ 도시재생분야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개발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 역사와 문화 등 과거를 되살리고 기능성, 예술성과 함께 미래지향성과 결합시켜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구는 재개발구역이 많다. 이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며, 아울러 도시재생과 관련해 중요한 시기임을 뜻한다. 이에 도시재생 재개발 사례 견학은 우리 구에서는 의미를 더하며, 검토자료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출장 시 현장시찰한 미국 뉴욕 배터리파크는 도시의 노후화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녹지와 공원 확보에 주력하여 재개발하였다.

덧붙여, 도시재생분야 세계 우수사례를 보면, 프랑스 파리 데팡스 지구는 낙후지역을 개발하면서 기존의 도심이 수용하지 못하는 초고층 첨단빌딩 집합지역을 건설하였는데, 이는 예술성과 첨단시설을 조화시킨 사례이다.

영국 런던 바비칸 지구는 3명의 건축가에게 재개발 계획안 전체를 모두 맡겨, 주거기능과 상업공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미래지향적 도시구조를 조성하였다.

캐나다 밴쿠버는 환경은 환경대로 보존하면서 도시생활의 편의성을 최대로 살리기 위해 철저한 계획정책으로 숲과 빌딩을 조화시켜 도시를 개발하였다.

일본은 무공해 노면전차 위주의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위 사례들은 도시재생 관련 모범적 사례들로, 주민의 아이디어와 능동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수렴하여, 민·관의 공동의지로 관광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호부두 재개발사업 추진에 세계의 우수사례를 적용하여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 UN평화문화특구 활성화 분야

UN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한다. 우리 구에는 세계유일 UN기념공원이 위치해 있고, UN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되어 평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전쟁이 불러오는 비참한 참상이 세계 어디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평화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도록 평화의 시작점이 우리 구가 되고자 한다. UN 방문과 더불어,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를 찾아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묵념을 통해 평화를 사랑하는 도시로서 그 위상을 떨치는데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을 하였다.

□ 문화·관광분야

미국 방문시 눈에 확연히 띄었던 것은, 도심 속에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으며, 국민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이었다. 링컨기념관, 토마스제퍼슨기념관, 인디펜던스홀 등 역사 속 인물을 기리는 기념관이 도심 속에 조성되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알려지고 전승이 되고 있었으며, 거리 건물마다 대형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기점으로 호텔, 식당, 관광 크루즈, 관광 헬기, 부대 편의시설 등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은 세계적 명성을 얻는 이유를 실감케 하며, 자원을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 조성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우리 구는 오륙도평화축제, 백운포달맞이축제, 오륙도사랑걷기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평화공원, 스카이워크, 황령산유원지 등 공원을 비롯해

향후, Sea-Side 관광지 개발까지 계획되어 있어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국의 뉴욕, 워싱턴 D.C.,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토론토 방문은 사회복지분야, 도시재생분야, 다문화정책분야, 문화관광분야 견학으로 구의회 의정활동에 도움을 얻고, 남구 주민 복리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선진국 실무를 배움으로써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 구 주요현안사업을 다시금 검토하고, 정책의회로 거듭나는 기회를 가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6박 8일 기간동안 기관방문, 현장시찰, 비교·분석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제안하며, 주민의 대표자·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며, 공무국외출장 관련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VI 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위원장	김영수	남구시니어클럽 자문위원	kimys7070@hanmail.net
부위원장	김태수	세계경찰연맹이사장	emerald-k@hanmail.net
위 원	이정실	동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jslee2@hanmail.net
위 원	김철수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kcs0095@pknu.ac.kr
위 원	박경미	부경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외래교수	tele21c@hanmail.net
위 원	강건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kingda99@naver.com
위 원	백석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geoson@nate.com